

한마음 제자교회

2018 02 10



평신도 후기

2018년 신년을 맞이하여 새벽기도회를 성경통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통독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성경 통독은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시편의 1편과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매일 새벽마다 나누어서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우가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의 감동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다윗의 회개와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들 뒤에 나오는 회복과 치유하심을 통해 다윗의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을 더 깊이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에 따라 특색있게 연기자들의 열정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 복음서 안에서의 많은 이적과 비유의 말씀을 듣는 새벽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 드리며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일부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남숙

목회자 후기

Just show up 행사인 말씀듣기 새벽기도회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월 22 일부터 시작된 이 시간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나누려고 한다.

우선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는 시간이 유익했다. 어떤 가감된 해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은 참 필요했다.

두 번째로 드라마로 만들어져 입체감이 더욱 생생하였다. 그 현장이 살아 있는 듯이 느껴져서 말씀에 몰입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좋기도 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들은 대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새벽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아직 육체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안된 분들은 지루하다고 빠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성경을 듣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단계가 너무 많아서 약간은 진행에 혼란을 가져 오기도 했다. 가령 시편 22 편을 터치하려고 하다가 21 편을 터치하기도 하고, 다른 책을 찾으려다고 꺼지기도 하는 등이 처음에 자주 일어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 연속적으로 몰입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결론 비록 많은 참가자가 없었지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보는 시간은 시선했고, 특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들어보고 각자 느끼는 대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점은 유익했다. 그리고 연초에 사복음서를 다 들었으니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곽부환 목사